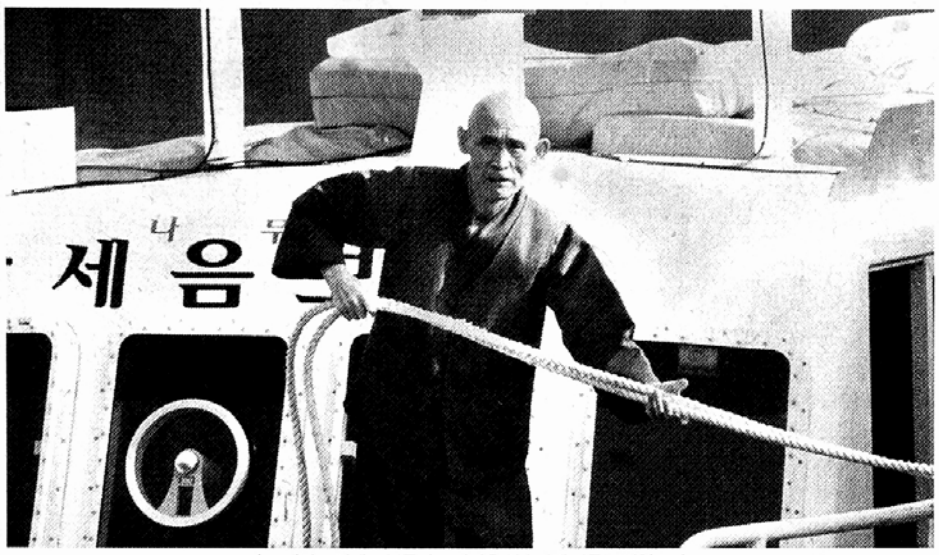


◇7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익숙하게 다루는 석천스님.

무구무착이어야 순일





◇바다에 떠있는 해상법당의 외형(왼쪽)과 내부(오른쪽) 모습.

하나 꿰뚫어 전부 통하는 길 열때까지 정진

루겠다는 서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40여 년 간을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며 살고 있는데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일 것이다. 스님은 기도하는 신도들에게 일념으로 임하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오매불망(寤寐不忘) 자기불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을 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관음도량에 가면 관음기도를 하고 지장도량에 가면 지장기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관음보살을 자기불로 정했으면 도량에 관계없이 자신이 존재해 있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오직 관음보살만을 생각하고 관음의 자비행을 따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심정진이 익고 또 익으면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조사들의 가르침도 다 하나의 불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기도에 관음이다 지장이다 미륵이다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여 타력이나 기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죠. 본래의 자기에게 내재된 불성을 각각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내증하여 대자유의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편이 목적이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무엇이 방편이고 무엇이 목적인가를 잊고 기도에 임하기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
"미안합니다. 성불합시다"
이보다 좋은 축원 없어

뜻을 세우는 것. 자신이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승가에 귀의한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정돈하는 입지가 부족하면 염불, 기도, 간경, 참선 등의 수행이 성숙될 수 없다. 그래서 스님은 정진은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선지식들을 찾아 어떤 정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를 물으라고 권한다.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근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관통하라. 자신과 자기불의 마음자리를 곧바로 꿰뚫어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석천스님이 강조하는 가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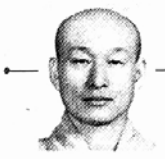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에 오직 한 마음으로 자기불을 염원하고 응시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정진이지요. 선사들이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여 1700공안을 다 열어버리듯 오직 하나의 자기불에 계합하면 일체의 불보살들이 다 자기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를 꿰뚫어 전부로 통하는 길을 열 때까지 일념정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앞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무구무착(無求無着)이라 했어요. 구하는 것이 없어야 집착도 없고 집착이 없어야 공부가 순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가 순일하면 구하는 것은 저절로 간파가 되어 이루어지고 얻어집니다.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공부는 허사입니다."

공부의 극점에 도달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일념을 근본으로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반드시 챙겨야 할 여장이 없을 수 있겠는가. 석천스님은 두 가지를 주문했다. 인사 잘 하기와 입 조심이다. 석천스님이 주문하는 인사 잘하기는 다름이 아니라 반드시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인사에 붙이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죄송합니다. 성불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불하세요" 등등. 성불이란 부처를 이루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그 이상 좋은 축원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이에 그 공덕이 자신에게도 쌓이는 줄도 알아야 한다.

입 조심은 궁극으로 마음단속이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입으로 뱉어 내는 데는 절제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뿐 아니라 숙세의 공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억겁의 복전을 이루기도 하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일이다.

인사를 잘하는 것과 말을 조심하는 것이 몸에 배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수행도 일념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일념에서 자기불을 관통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면 방생이나 기도, 각종 재의식의 공덕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 스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배는 어느새 한산도 선착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글·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기후스님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서로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며,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만나기 마련이다.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세속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중의 수도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친구의 사전적 의미는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는 뜻이다. 같은 나이 또래의 가까운 사이라는 의미도 있다.

불교 수행자들은 친구라는 말보다 도반(道伴)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같은 길을 가는 반려(伴侶), 즉 도를 닦는 반려자라는 뜻이다. 나이 차이가 많아도 같이 수행하며 살아가는 사이에는 도반이 될 수 있다. '공부의 절반은 좋은 도반이 시켜준다'는 말이 있듯, 도반이 좋아야 수도를 잘 할 수 있다. 사실, 수행자들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명예도 부귀도 모든 욕망도 산밖에 던져 버렸기에 그들에게 있어 세속적 성공은



산마루에 일었다가 사라지는 한 조각 구름 같을 뿐이다. 오직 내면의 세계에 침잠하는 그들의 삶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아니 외로워야 마땅하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들이기에, 도반은 도의 길을 걷는 데 있어 거의 절대적인 존재다.

나에게도 도반이 한 분 있다. 수계도반, 강원도반, 선원도반이 한 둘이 아니지만,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한 도반은 오직 그 하나뿐이라고 생각한지 오래다. 바로 기후스님이다.

기후스님은 나보다 세속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형님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강원도반 사이다. 초심시절, 강원에서 공부할 때 나는 거의 막내였고, 스님은 위에서 몇 번 째 연장자였다. 나이가 어린 편인 나는 주로 말썽을 부리는 쪽이었고, 스님은 언제나 일을 마무리하는 입장이었다.

기후스님은 안동에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산했다. 어렸을 때 심한 마마를 앓았는데, 부모님은 고열에 시달리던 그가 죽은 것으로 알고 눈물과 함께 담요에 싸서 내다 버리려고 했단다. 그러나 할머니의 손자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능가했던지, 할머니가 "버릴 땐 버리더라도 한번만 더 보자!"하시며 담요를 풀러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동지섣달 추위에 열이 식어 살아있었단다.

기후스님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내 이번 삶은 송두리째 덤으로 사는 것이니, 정말 고맙게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인지 스님은 매사에 수용하는 자세로 살고 있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언제나 묵연히 바라볼 뿐 시비에 말려들지 않는다. 강원에서 같이 공부할 때, 의견이 엇갈려 시비가 길어져도 그는 다만 침묵할 뿐 말이 없다. 우리의 토론은 끝날 줄 모르다가 마침내는 모두 기후스님을 쳐다본다. 그때가 되면 그는 무겁게 입을 열어 몇 마디 간단하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결론이 되곤 했다.

스님은 통도사와 해인사 강원에서 사집을 몇 년 동안 가르쳤다. 그에게 배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후스님을 진정한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를 할 때도 모르는 것은 겸허하게 모른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나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음에 도달해야만 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말하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자들에게 모른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가 모

"내 삶은 덤, 고맙게 살아야"
묵언중 스님 종일 듣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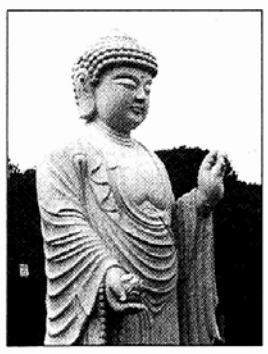
른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모른다고 말할 때 오히려 분명히 안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기후스님의 인품이다.

그가 선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도사 강원의 증강을 사임할 때, 나를 불러 그 자리를 맡긴 것이 그와 나를 깊은 인연으로 묶는 실마리가 되었다. 그 뒤 내가 운흥사 주지로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몇 년을 같이 살면서 도와준 인연으로 우리는 서로 마음의 도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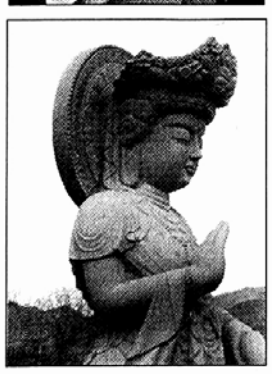
내가 보아온 기후스님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나타면 숨기고자 했을 일들을, 수행자로서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을 솔직담백하게 드러내 놓는다. 그를 보면 '솔직한 것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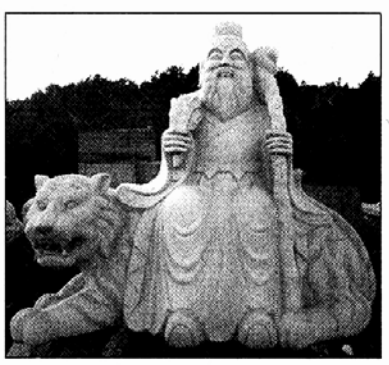
내가 대만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는 산속에서 6년 묵언 수행정진을 했다. 내가 영어와 중국어를 익힐 때 그는 침묵속으로 침잠하고 있었고, 내가 포교한다고 이곳 저곳으로 다닐 때 그는 선원에서 면벽하고 앉아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다. 내가 일시 귀국해 묵언중인 그를 찾아갔을 때 스님은 내 손을 잡고 말이 없었다. 나는 하루종일 말하고 그는 듣기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 종일 말한 나의 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고, 침묵을 지키던 그의 눈빛은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계속) ▨ 구미 영명사 주지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3일 안에 깨닫는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일상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잡지 못해 방황할 때
- 번민, 감동,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자기 조상과 타인의 조상을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시공을 초월한 존재의 근원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운명을 바꾸는 능력
- 고도의 정신집중 능력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영혼의 안식처 : 24시간 전화상담 받습니다.

(霧林 주위환경)
수려한 경관에 수련지 전용 현대식 목조주택, 수목원, 산책로(호수), 약수, 등산로

수련과정

本性 3박4일	참마음
一性 1박2일	實體없음, 時空없음, 無分別智
完性 2박3일	不空, 眞空妙有, 無分別後得智, 無上覺, 無碍自在 업장소멸, 조상천도(薦度), 마음의휴식
保任 2박3일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自義的삶 꾸리기, 氣(에너지), 마음과 최면(催眠), 삶의 유희(遊戲)
健康 2박3일	藥이 필요 없는 온전한 몸 다루기

참마음수련 心田